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존중지구촌 연대뇌건강치과사업추진위원장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VI)

- 베토벤에게 헌정된 빈 분리파의 종합 예술

림트(Gustav Klimt, 1862-1918)가 이러한 베토벤의 철학과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지난 1월에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하면서 19세기 말 새로운 예술 운동을 상징하는 건물인 제세시온(Sezession: 분리)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가진 바 있다.

1902년 14회 전시회에는 빈이 낳은 시대의 악성 베토벤에게 건축, 회화, 조각, 음악이 헌정되었다. 메인홀에는 막스 클링거(Max Klinger, 1857-1920)가 베토벤의 동상을 전시했다.

필자도 (베토벤 프리즈)를 보고 비치된 헤드폰으로 합창 교향곡 4악장을 들으면서 베토벤과 빈 분리파들의 철학을 그려보았다.

그 작품에는 질병, 광기, 죽음, 음란, 쾌락, 재물을 넘어 인간이 꿈꾸는 순수한 환희, 순수한 행복,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인간만이 악보를 통해 노래를 배워 합창할 수 있다. 합창을 하거나 들으면 뇌 속에 쾌감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대량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을 느끼는 엔도르핀이 증가한다.

노래는 청각 신경망과 체성각각 신경망 그리고 음성운동 제어망의 조정에 의해 생성된다. 뇌의 인슐라에 참여 속에 전방 대상 피질, 수관주위 회색질의 자극, 일차 운동 피질에 의한 관련 조직의 운동으로 소리가 유도된다.

1988년 2월7일 나라도 동계올림픽 개최식에서 6개국 일곱 곳에서 교향곡 '환희의 성가'가 인류의 염원을 담아 연주된 바 있다.

자치칼럼



이계양

광주푸른꿈작업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공동체의 공동체성(共同體性)

할 수 없지 않은가. 학교나 단체에서 큰소리로 약을 썼다고 법대로 할 수 없지 않은가. 입법·사법·행정부에서도 갖가지 사안들을 모두 법대로 할 수 없지 않은가.

장우 흥보하듯 수족관의 물을 마시고 생선회를 먹어 보이는 모습. 여러 나라에서 여러 차례의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서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일.

모름지기 공동체란 구성원들 간에 공통으로 감각하는 공동체성(共同體性)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성(共同體性)은 공동체의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하려고 하는 집단이 갖는 성질을 말한다.

물상식이 상식 위에는 균립하여 위세를 떨치고, 불량(不良)이 위를 마음껏 조롱하며, 무례(無禮)가 예의의 뼈를 때리며, 몰염치(沒廉恥)의 뻔뻔함이 엄치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가정, 직장, 학교나 단체 그리고 사회가 이 정도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의 공동체성(共同體性)을 지켜가려는 눈물겨운 노력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기에 공동체성(共同體性)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동체의 건강성과 유지의 지속성은 공동체성(共同體性)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가정, 직장, 학교나 단체 그리고 사회가 이 정도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의 공동체성(共同體性)을 지켜가려는 눈물겨운 노력 때문일 것이다.

'스미싱' 단 한 사람도 피해어서는 안돼

사칭 등의 의심 문자와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교통법칙금을 가장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 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에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

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끝으로 의심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신병진·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社說

상대 자극 감정싸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도움안돼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연휴 직후 개최한 광주 공항 이전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도가 광주시를 직격했다.

앞서 강 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하고도 함흥차사'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전남도는 연이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무안군을 함께 설득해도 부족할 판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전남도의 생각대로 광주시 또한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은 아닐 것이다. 김산 무안군수가 한사코 피한다면 강 시장과 김 지사리도 자주 만나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AI영재고 재정부담 협의·국회 설득 일사불란하게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산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에 건축연면적 2만400㎡, 지하 1층-지상 5층의 학습연구동과 기술숙주 2개동 규모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증액을 통해 건축비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뛰어야 한다.

개발, 교직원 학생 선발 등 착수 계획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드디어 AI영재고 신설이 가시권에 들었다.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토대다. 걸림돌이던 재정부담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침물어는 詩 꽃을 이끌고 가야지 임영숙

한 그루 나무에서 만 그루의 아들이 살아 벌레 먹은 나뭇잎 그사이로 벌이 떴다 가을은 붉은 내력을 벗은 불꽃들의 집합체



맷허있는 물방울에 무지개도 걸리고 근육질 가지마다 보석이 반짝인다 자신의 뿌리 끝 영혼을 향해 가는 순례의 시간

(시조집 '뜰판 정치', 작가, 2024)

[시의 눈]

집 앞 운량산엔 밤나무 숲이 있습니다. 와이 한창일 때를 보내고 이제 나무들은 밤송이를 다는군요.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950-2022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